

[서 평]

## 냉전과 건군의 거대한 뿌리

-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 KMAG』(한양대 출판부, 2016) -

김선호\*

### 냉전의 최전선, 한반도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으로 상징되는 19세기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꽃피우면서 인류의 삶을 새로운 단계로 비약시켰다. 그러나 산업과 정치의 발전은 인류에게 새로운 재앙을 가져왔다. 그것은 제국주의(Imperialism)였다.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Eric John Ernst Hobsbawm)이 정확히 통찰했듯, 세계는 ‘혁명의 시대’를 지나 ‘제국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유럽의 열강들은 자본과 과학을 무기로 전 세계로 진출했고, 식민지를 둘러싸고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세기는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시작되었다. 제1차대전의 혼돈 속에서 제정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은 1917년에 10월혁명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고, 이로써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국가인 소련이 출현하였다.

1939년, 세계는 전쟁의 피해를 미처 복구하기도 전에 다시 제2차

---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세계대전의 격랑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유럽의 열강들은 제2차 대전의 과정에서 막대한 전쟁의 피해와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서 국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반면에 미국과 소련은 세계대전의 과정에서 정치·경제·군사적 위상을 강화하면서 초강대국으로 급격히 부상하였다. 양국이 제2차대전 이후의 세계질서를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냉전(Cold War)의 시대’가 출현하였다. 그리고 식민지·반식민지 상태에서 독립한 제3세계 국가들은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냉전체제에 편입되었다. 이른바 ‘극단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새로 출현한 냉전체제는 한반도의 정치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전통적으로 중화질서(中華秩序)의 영향 아래 역사를 형성해온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이 북위 38도선의 이남과 이북에 각각 진주하면서 점차 냉전체제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한반도는 미국의 입장에서 소련과 직접 맞닿은 지역이었고, 소련의 팽창정책(Expansion policy)을 저지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였다. 이같은 이유로 미국은 38선 이남지역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계획하였다. 미국의 대한정책은 사회주의 모국(母國)인 소련의 팽창을 저지함으로써 자본주의체제를 방어하려는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로써 한반도는 전후에 출현하기 시작한 냉전체제의 최전선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한국인들은 해방 직후부터 새로운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였다. 새로운 국가에 필요한 기구 중 하나는 군대였다. 미군정은 1946년 1월 15일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고, 한국인들은 국방경비대에 입대해 이를 향후 정규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군은 이와 같은 창군과정을 거쳐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창설되었다.<sup>1)</sup> 그리고, 미국은 1949년

1) 백기인, 『建軍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39~140; 162쪽.

6월 29일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킨 후 국군의 훈련을 돕기 위해 군사고문단을 잔류시켰다. 이것이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이다.

미국의 군사고문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4월 1일까지 23년간 국군의 건군과 발전을 원조하였다. 그러므로 한·미 군사동맹은 주한미군사고문단에서 기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군사고문단에 대한 연구는 손에 꼽을 만큼 적다. 이와 같은 연구상황에서 2016년에 박동찬이 집필한 『주한미군사고문단 KMAG』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연구사적 공백을 뛰어넘는 저서이다.

이 책의 첫번째 특징은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역사를 1948년 8월 임시군사고문단(PMAG)부터 1971년 4월 주한미합동군사원조단(JUSMAG-K)까지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는 군사고문단의 역사를 주로 6·25전쟁 이전에 한정해 연구하였다. 저자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창설과 기능, 6·25전쟁 당시 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활동, 전후 군사고문단이 합동군사원조단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1차 자료를 토대로 치밀하게 연구하였다. 현대사 연구에서 20여 년의 시기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더구나 6·25전쟁과 전후의 군사고문단 역사는 연구된 적이 없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가 크다.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은 주한미군사고문단과 관련된 원자료를 전면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저자가 활용한 자료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주한미군사고문단이 생산한 자료이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지휘보고서(Command Report)」, 「군사고문단 분기 역사보고서」, 「반년간 역사보고서」, 「일일정보보고」, 「정기작전보고서」 등을 들 수 있다. 이 자료들은 군사고문단이 당대에 생산한 것으로, 군사고문단의 조직·편제·장비·인물·활동과 국군의 편제·인물·무기·교육·훈련·작전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자료

이다.

둘째, 미국정부가 생산한 군사원조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들은 미국이 추진한 대소련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유럽·중동·아시아에 제공한 군사원조의 내용과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미국의 상호방위원조법과 상호방위원조계획, 대한군사원조계획, 대한군사원조의 정책결정과정, 그리스·터키·이란의 미합동군사원조자문단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셋째, 미 육군 군사연구실에서 생산한 주한미군사고문단에 관한 연구 초고이다. 이 자료들은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산되었지만, 미발간상태로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소장되어 있다. 대표적인 자료는 스카그스(David C. Skaggs)와 와이너트(Richard P. Weinert)의 미간행 연구서인 『1951~65년 국군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1951~1965)』, 소이어(Robert K. Sawyer)의 『주한미군사고문단 : 평화와 전쟁 시기의 주한미군사고문단』, 마이어(Kenneth W. Myers)의 『주한미군사고문단 : 전쟁기 주한미군사고문단의 경험(1951.7.11~1953.7.27)』 등이다.

저자는 이 책의 머리말에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에 대해 상세한 해제를 수록해 놓았다. 이 해제에는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각 문서군(RG)에 소장되어 있는 군사고문단 관련 문서의 생산주체·제목·구성·주요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역사와 국군의 건군사를 연구하려는 연구자들이 앞으로 자료의 출처와 특징을 이해하고 자료를 추적하는데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 군사사의 가능성과 성과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연구한 내용은 역사학의 다양한 연구분야 중에서 군사사(Military history)에 해당한다. 군사사란 ‘전쟁과 교전, 그리고 제반 군사분야와 그에 관계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이념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역사학의 한 분야’를 말한다.<sup>2)</sup> 한국의 군사사 연구는 주로 유럽·미국·소련을 주제로 전투·전쟁, 군사사상, 전쟁과 사회·문화·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주한미군사고문단과 국군의 역사를 군사사의 방법론에 입각해 분석한 연구성과는 많지 않다. 특히, 군사고문단은 해당 군대의 창설과정과 육성과정에서 군대의 정치·군사·문화적 특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군사사 연구의 중요한 주제이다.

박동찬은 이 책을 통해 군사사의 관점에서 선행연구를 뛰어넘는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저자는 비교사의 연구방법론을 활용해 주한미군사고문단을 그리스·터키·이란의 군사원조사문단과 상호 비교함으로써 미국의 대외군사정책이 가지는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밝혀냈다. 미국이 그리스·터키·이란·한국에 설립한 군사고문단의 활동목표는 “상호방위원조계획의 궁극적인 목표인 집단적 방위체제, 즉 군사적 지역통합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저자의 평가처럼, 그리스·터키·이란의 군사원조사문단은 지중해·중동 지역의 실험사례였고, 한국의 주한미군사고문단은 아시아의 실험사례였다. 서유럽에서부터 군사고문단이 설치된 4개 국가를 연결하면, 이 선이 바로 미국의 대소(對蘇) 봉쇄선이었다.

저자의 탁월한 관점은 미국이 1949년 4월부터 경제·이념적 측면을 중시하는 대소 봉쇄론을 대신해 군사적 봉쇄와 적극적 탈환

2) 정토웅, 「軍事史 研究 方法論 I」: 軍事史란 무엇인가, 『軍史』24호, 국방군사연구소, 1992.6, 20쪽.

(roll-back)을 주장하는 전면적 봉쇄론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에 주목한 점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 집단적 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상호방위원조계획에 한국을 포함시켰고, 이 동아시아정책에 따라 주한미군사고문단을 설치하였다. 이같은 관점은 미국이 1950년 1월 애치슨선언(Acheson line declaration)을 통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저평가했다는 기존 연구와 달리, 미국이 1950년에도 한반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책기조에 입각해 동아시아정책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둘째, 박동찬은 군사와 정치, 군사와 교육의 관계에 주목해 6·25 전쟁 이전 38선 충돌을 둘러싼 한·미간의 대립과 국군 장교단의 도미 군사유학에 대해 연구하였다. 미국은 1948년 후반부터 본격화된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 두가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여순사건과 게릴라활동 등 비정규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38선 충돌에 대해서는 방어적 입장을 취했다. 저자는 미국이 한국정부의 북진론(北進論)에 대한 반대입장을 기본방침으로 설정하고, 군사고문단을 통해 국군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킨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박동찬은 군사고문단이 전쟁 전후 국군 장교를 대상으로 도미 군사유학을 추진한 과정과 내용을 해명하였다. 저자는 미국이 주로 국군의 초급장교들을 중심으로 군사유학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에 우호적인 장교단을 양성하고 단기간에 미국의 군사제도를 국군에 전파시켰다고 분석하였다. 이 책은 군사와 정치·교육의 상관관계를 고찰해 군사문제를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 속에서 고찰함으로써 군사사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역사적 실체와 국군의 건군 과정을 해명할 수 있는 원자료를 직접 활용함으로써 향후 군사사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에는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소장된 군사고문단·국군에 관한 각종 도표·통계·명단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도표는 미국의 군사원조 조직체계도(1950.1), 미국의 1951년 상호안전보장계획(MSP) 조직도(1951.5), 국군 전투사단에 배속된 고문단 조직도, 미 극동군-한국군 지휘체계(1955.8) 등이다. 대표적인 통계는 1949년 4월 미국 행정부의 군사원조계획안, 주한미군 철수시 미국이 이관한 주요장비 현황(1949.6.30), 주한미군사고문단 인원배당표(1951.3, 1952.1), 1952~54 회계연도 미군 군사학교의 국군 장교 등이다. 또한, 이 책의 말미에도 주요자료가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자료는 국군 훈련현황(사단·연대·대대별, 1949.12, 1950.6), 전쟁기간동안 국군 병력현황(1950.7~1953.7), 1953~1969년 주한미군사고문단 인가 병력 현황, 1951~1960년 군인과 민간인 해외 유학 인원수 등이다. 이 자료들은 대부분 처음 공개된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

## 건군과 전쟁, 그리고 한미동맹

이 책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대외군사원조정책과 군사원조자문단(MAAG)의 운용사례,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창설과정과 주요기능·활동, 6·25전쟁 당시 군사고문단의 변화와 편성, 전후 군사고문단의 활동과 변화과정이다. 주제 별로 크게 분류하면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창설배경, 창설과정, 변화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군사고문단의 창설배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군사고문단과 상호방위원조계획(MDAP)의 상호 관련성을 추적한 점이다. 박동찬

은 군사고문단이 단순한 군사원조기구가 아니라 미국의 대외군사정책을 관철시킨 주체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군사고문단은 미국이 1949년에 제정한 상호방위원조법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추진한 상호방위원조계획(MDAP)의 실무기관이었다. 미국은 군사고문단을 매개로 집단적 방위체제를 강화하고자 계획했고, 상호방위원조계획의 궁극적 목표인 군사적 지역통합을 추구했다. 저자의 이같은 관점은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역사를 군사적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이것이 전후 냉전체제의 구축과정에서 가지는 의미를 해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군사고문단의 창설과정에서 인상적인 대목은 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편제, 국군의 훈련과 작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내용이다. 이 책에는 원자료를 토대로 군사고문단의 편제인원, 주요 보직자, 지역별·국군부대별 군사고문단의 배치인원, 군사고문단 내부부서의 구성과 임무가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또한, 군사고문단이 국군을 대상으로 1949년에 추진한 2단계 훈련계획과 1950년에 추진한 4단계 훈련계획, 1949~1950년 국군의 부대별 전투효율성, 국군의 게릴라 토벌작전에 대한 지도와 38선 충돌 관련 작전계획 수립 내용이 구체적으로 해명되어 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앞으로 국군의 건군과정에서 교육과 훈련, 후방작전과 방어계획을 해명하는데 연구사적 토대가 될 것이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국군 중 후방지역 게릴라 토벌작전에 투입된 부대는 토벌작전이 진정국면에 들어서면서 전투효율성이 증가했으며, 전방지역의 전투부대는 38선 전투의 영향으로 인해 전투효율성이 약화되었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개전 직후 국군의 전투력 현황에 대해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창설과정에서 주목되는 두 번째 내용은 1949년 미국의 상호방위원조법이 발효되면서 군사고문단에 두가지 역할이 부여되었다는 점

이다. 군사고문단은 상호방위원조법이 발효되기 이전까지 국군의 조직과 훈련이라는 군사고문단 고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상호방위원조법이 발효된 이후에는 상호방위원조계획의 운영과 관련해 주한미대사를 보좌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점은 미국이 1949년 4월 적극적 탈환(roll-back)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대한군사원조를 확정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새로운 법의 제정이나 NSC 8/2의 개정 없이도 상호방위원조법 제408조 (C)항의 규정에 따라 그리스·터키지역의 비계획 자금을 한국으로 전용할 수 있었다. 결국, 미국의 대한군사전략 목표는 1950년 6월을 전후해 국내의 치안유지라는 목표에서 북한군에 대항한다는 목표로 전환되고 있었다.

6·25전쟁 당시 군사고문단의 활동과 편성에 대해 저자가 제기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군사고문단이 전쟁 이전 주한미사절단(AMIK)의 일부로 주한미대사의 통제를 받던 것에서 벗어나, 개전 이후에는 주한미군사령관과 미8군사령관의 작전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군사고문단은 1950년 8월 29일 극동군사령부에 예속되었다가, 1951년 1월 10일 공식적으로 미8군사령부에 예속되었다. 이에 따라 전쟁의 전황과 군사전략이 군사고문단의 규모와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군사고문단의 규모는 국군의 확장에 따라 수시로 변했는데, 1951년 3월에는 총 1,013명, 1952년 1월에는 총 1,815명이었다. 군사고문은 전투부대의 경우 연대급까지 배치되었고, 포병·공병·통신·특수부대의 경우 대대급까지 배치되었다. 이들은 미8군사령관의 명령이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군 지휘관을 보좌했으며, 국군의 전투부대를 지휘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음으로, 전시 군사고문단에는 기존의 공식 임무가 종료되면서 국군의 재편, 지휘관의 보좌와 통제, 작전지도라는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었다는 점이다. 군사고문단의 주요임무는 1951년 미국의 전쟁 전략이 휴전으로 기울어지면서 국군에 대한 작전지도에서 교육 훈련 지원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군사고문단은 국군 장교들의 도미 군사유학을 적극 추진하였다. 군사고문단은 국군의 정규작전에 대한 지도 이외에 제2전선의 비정규전에도 깊이 관여했다. 미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중장과 백야사(白野司) 선임고문관 다즈(William Dodds) 중령은 그리스군사자문기획단의 단장과 기획단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리스내전을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었고, 이 경험을 한국의 비정규전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 분석은 국군의 장교교육과 비정규전 전술을 해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쟁기 국군의 증강은 미국의 인천상륙작전 구상과 휴전·철군·확전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은 인천상륙작전을 구상하고 미군의 부족한 병력을 보완하기 위해 국군을 증강시켰다. 또한, 1951년부터 미국 국방부·합참·맥아더 간에 휴전·철군·확전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국군의 군사교육체계를 정비하고 교육훈련과 지휘 능력을 강화시킨 후 장기적으로 병력을 증강한다는 정책이 결정되었다. 국군에 대한 증강계획은 결국 20개 사단 증강으로 확정되었고, 이것은 미국이 장기간 대한군사원조를 제공하고 독자적으로 한국의 전후복구를 책임지겠다는 결정이었다. 이 분석은 전후 국군 증강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이 다루는 마지막 내용은 휴전협정 체결이후 군사고문단의 변화과정이다. 휴전협정 이후 군사고문단의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대한군사원조기구의 상부기관과 미 극동군-국군의 지휘체계에 대한 문제이다. 미 극동군사령관은 군사고문단을 기반으로 주한 미군사원조사문단(MAAG-K)를 설립하고, 자문단을 통해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국군의 작전통제권과 상호안

전보장법에 대한 미 육군부·극동군사령부와 국방부의 견해차이로 인해 1955년 1월부터 1971년 3월까지 주한미군사고문단과 임시주한 미합동군사원조사문단(PROVMAAG-K)이 공존하게 되었다. 유엔군사령관의 지휘통제 아래 있던 고문단 기구는 1971년 4월 1일 주한 미합동군사원조사단(JUSMAG-K)으로 통합되었고, 군사고문단은 합동군사원조사단 육군과로 전환되었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해소는 1950~60년대 국군의 성장에 따라 군사고문단의 필요성이 축소되고 주한미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하는 ‘한미 연합군’체제가 일정한 궤도에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 냉전체제의 재해석

박동찬은 이 책을 통해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전체적인 역사를 연구했으며, 거시적으로는 한반도 냉전체제의 형성과정을 연구했다. 즉, 저자는 제2차대전 이후 미국이 대외군사원조를 통해 각 지역별로 집단적 방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소련 봉쇄정책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주한미군사고문단을 통해 해명하였다. 그리고 저자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창설과정과 변화과정을 통해 미국의 상호방위원조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실현되었고, 국군의 증강과 성격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해명하였다. 이같은 연구의 특징은 이 책의 장점인 동시에 아쉬운 점이기도 하다.

이 저서의 아쉬운 점은 주한미군사고문단과 국군을 중심으로 서술되면서 북한주재 소련군사고문단과 북한군의 현황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저자의 연구주제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이므로 반드시 소련군사고문단을 참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소련군사고문단과 북한군의 현황을 활용했다면 보다 완성도 높은 저서가 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 이전 주한미군 사고문단과 소련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활동을 상호 비교한다면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에 대한 소련측의 동아시아적 대응을 해명할 수 있다. 또한, 국군의 증강은 미국의 상호방위원조계획에 따른 조치일 뿐만 아니라 1949년 이후 북한군의 급격한 증강에 대한 대응조치이기도 했다.

연구의 시야를 동아시아로 넓혀보면,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설립과 활동은 1946년 이후 중국에서 전개된 국공내전(國共內戰)의 전황과도 연관되어 있다. 미군의 지원을 받은 중국국민당은 1947년까지 국공내전에서 우위를 차지했지만, 1948년부터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결국, 중국국민당에 대한 군사원조를 통해 중국의 공산화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1949년 10월 1일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중국혁명’의 결과, 1949년 말에 북한·중국·소련의 북방3각동맹이 출현하였다. 이같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는 미국이 구상한 집단적 방위체제와 대한군사원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6·25 전쟁 전후 북한·중국·소련의 현황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활동과 변화가 추가로 해명될 수 있길 기대한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이 활동한 시기는 동아시아가 냉전체제로 편입되는 시기와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 군사고문단은 앞으로도 냉전체제와 관련해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제2차대전이 끝나면서 전쟁을 통해 싸우는 열전(Hot War)의 시대는 종결되었고, 전쟁없이 싸우는 냉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유럽에서는 1949년에 미국의 주도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출현하면서 소련의 팽창정책과 미국의 봉쇄정책이 불안한 균형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세계사적 흐름과 달리 6·25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냉전시대 최초로 열

전의 전장(戰場)이 되었다. 즉,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서구의 냉전체제와 다른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각 나라에 설치한 군사고문단은 2~7년 정도 존속하다가 군사원조사문단으로 전환되었지만, 주한미군사고문단은 23년간 존속했다. 선행연구에서 냉전체제의 중심은 늘 서구였으며, 동아시아는 냉전체제의 변경(邊境)이었다. 그러나 6·25전쟁의 사례에서 보이듯, 변경은 종종 중심을 넘어서 체제의 본질적 성격을 변화시킨다. 이 책은 주한미군사고문단을 통해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명함으로써 서구 중심의 냉전체제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